

깨달음이 있는 곳 바로 지금 이 자리죠

푸른눈의 구도자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종교학과 출신 경본 스님

“참선은 한국 불교를 이어온 힘입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떠나 누구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참선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무각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참선수행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 벽안의 경본(京本) 스님은 한국 불교 문화에 반해 출가한 미국인이다.

그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일반인 대상 참선수행을 지도하고, 매달 1, 3주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영어로 청소년을 대상 참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본 스님은 대학에서 처음 불교를 만났다.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교양과목으로 불교 인문 수업을 들었고, 그걸 계기로 종교학과로 전공을 바꿨다.

“대학 입학 후에 삶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불교의 명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힘들었던 탓에 처음부터 불교 사상이 와닿았어요. 불교 인문 강좌를 수강하면서 친구들과 절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일본 불교 선원에서 처음 참선을 했어요.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죠.”

경본 스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속소를 일본 불교 선원 인근으로 옮겼다. 1년 동안 그 선원에 다니면서 매일 불경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한국 불교에 대해서



무각사에서 일반인 대상 참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미국인 경본 스님은 환한 미소와 유창한 한국어가 인상적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먼 훗날 미국 돌아가 불교와 참선·명상 전파하고 싶어”

“가르쳐주고 싶다”는 같은 대학 출신의 한국인 선배의 권유가 있었다. 그때 송광사와 조계사, 국제선원 무상사를 방문했었다. 송보종찰 송광사가 대학교에서 처음 불교를 만났을 때와 같이 마음을 흔들었다.

“천년을 이어오면서 응집된 불교사상이 사할 곳곳에 스며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만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인연이 있었던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이 ‘원하면 한국에서 불교를 배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전부터 생각은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 줄은 몰랐었죠.”

경본 스님은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대학 교수를 지낸 아버지와 현재도 대학 교수로 있는 어머니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뜻을 접을 수는 없었다. 평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송광사에서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혜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때가 지난 2009년, 24살 때였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미국과 문화도 달랐지만 7개월간의 행자를 끝내고 조셉 맥기번(Joseph McGibbon)이라는 이름 대신 경본이라는 법명을 새로 얻었다. 서울에 뿌리를 둔다는 표면적 뜻과 달리 불교의 최종 목적이자 깨달음에 근본을 둔다는

광주 무각사에서 일반인들 대상 참선 프로그램 지도 영어교사 봉사도

의미를 담고 있다. 무각사와는 송광사 강원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 방학 때면 무각사를 찾았었다. 강원을 졸업하고 지난해부터는 주지 청학 스님의 허락을 받아 하안거와 동안거 때를 제외하고는 무각사에 머물면서 참선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다.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입니다. 제가 법문을 하면서 다른 이들을 지도하기보다는 함께 공부하는 것이죠. 저도 아직 수행 중기 때문에 마련된 공간에서 함께 배운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선방에서 수행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경본 스님은 참선수행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직접 배운 요가를 가르치면서 몸을 푼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항상 참가자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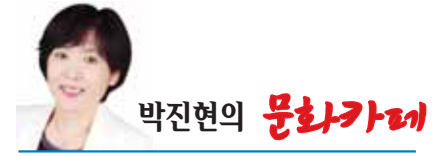
최근에는 광산구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불교를 떠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참선을 하면 하는 바람이다.

“누구든지 마음의 중요성만 알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생각과 마음, 즉 화념과 집착, 어리석음에 이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풍요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현재 전남대대학원에서 종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경본 스님은 앞으로도 선방에서 수행에 전념할 계획이다. 그리고 먼 미래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불교와 참선, 명상 등을 전파하고 싶다.

경본 스님은 마지막으로 해인사 장경각 주련에 적힌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是)’라는 구절을 들려줬다. ‘깨달음이 있는 곳은 그 어디인가? 지금 생사가 있는 이 자리이다’라는 의미다.

참선 프로그램 문의 062-383-0108. /김경천기자 kk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팔각형 구조의 벽돌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검은 그림’(black painting)들이 시선을 압도했다. 검정색 잉크를 풀어 놓은 밤바다에 풍덩 빠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의 평온한 모습이었다. 마치 작은 시골 성당에 앉아 경건하게 미사를 올리는 신도들 같았다. 나무로 만든 기다란 의자에 앉아 검은 그림들을 마주한 순간 나도 모르게 깊은 명상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10여 년 전 미국 연수시절, 우연히 들른 ‘마크 로스코 채플’(Mark Rothko Chapel)에서의 추억이다.

유료서의 예술의 힘을 생생히 보여준다.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를 앞두고 문화·예술로 그날을 치유하고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비극 앞에 예술가들은 이야기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남은 사람들에게 망각의 유혹에 맞서라고 주문한다.

최근 심상대·전성태 등 15명의 작가들은 추모 소설집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출간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문화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오는 18일 막이 오르는 안산문화

“리멤버 포에버 0416”

미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이곳은 색면추상화가 마크 로스코(1903~1970)의 검은 그림 14점을 8개의 벽면에 내건 예배당이다. 1971년 석유재벌 출신 자선사업가인 존 드 메닐(John and Dominique de Menil)부부에 의해 세상에 나왔지만 순전히 ‘로스코의, 로스코에 의한, 로스코를 위한’ 공간이다.

1964년 메닐 부부는 자신들의 로망인 화려한 예배당을 건립하기 위해 당시 뉴욕에서 잘나가는 마크 로스코에게 그림을 의뢰했다. 강렬한 원색과 기하학적인 형태의 ‘로스코 스타일’을 제안했지만 그는 예배당의 컨셉에 맞게 그림과 대화를 나누는 성찰의 공간으로 꾸미자고 메닐 부부를 설득했다. 그로부터 7년 후, 예배당의 로스코 그림들은 인종과 종교를 떠나 방문객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아이콘이 됐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소’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곳은 치

재단 신촌음악회의 주제는 ‘리멤버 포에버’(Remember forever)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잊지 말아요’와 ‘노란 리본’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아픔을 함께했던 김창완밴드가 그때의 약속을 되새겨본다.

지역에서도 오는 24일 오후 7시 광주 메이홀에서 권현영, 나희덕, 한희원, 임의진, 이진희, 김성규씨가 출연하는 세월호 1주기 추모 시 낭송회가 열린다. 또한 최재덕, 김화순, 최병진 등 젊은 작가들이 오는 30일까지 광주 지산동 지산골 갤러리에서 ‘아픈 세월’(오는 30일까지)을 열고 기억해야 할 세월호 관련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비록 장르는 다르지만 예술이 추구하는 추모의 본질은 하나다. 세월호 참사가 헛되지 않도록 그날의 비극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화행사에 함께 한다는 건 곧 망각에 ‘저항’하는 것이리라.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어린이 문학잔치’ 동시·시낭송 작품 공모

한림문학작가협회

20일까지 광주 초등생 대상

한림문학작가협회와 (사)한림문화재단이 ‘어린이 문학잔치’ 동시 작품과 시낭송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 문학 꿈나무를 발굴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의 자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20일까지 광주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학생은 창작 동시 및 시낭송 작품 1편을 메일로 (hanlim66@hanmail.net)로 접수(작품 및 사진·연락처 기재)하면 된다.

우수작품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광주상무지하철 전시관과 상설무대에서 동시화전과 시낭송회를 갖게 된다. 전시와 동시화 제작에 따른 비용은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문의 010-3627-181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우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어?”

www.cjhellovision.com